JLPGA 이보미 "올림픽은 모든 선수의 꿈"

한국선수 상위랭커 4명 출전 자격…현재 세계랭킹 15위 안에 8명 포진

"올림픽은 모든 선수의 꿈이죠. 그 꿈을 목표로 했던 선수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더 클래식 500 그랜드볼룸에서 건국대학교 골프부의 '세계 3대 투어 100승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보미짱'이란 애칭과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보미(28)가 모교의 기념비적인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보미는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바쁜 스케줄을 쪼개 이날 기념식장을 찾았다. 지난 주말 투어 대회를 마치고 피곤할 법도 했지만 오랜 만에 은사님을 비롯해 동문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표정은 더 없이 밝았다.

지난해 JLPGA 투어에서 7승과 함께 투어 사상 최다 상금기록까지 세운 이보미는 지난 3월 요코하마 타이어 토너먼트 PRGR 레이디스 컵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에도 1승을 신고했다.

그리고 그 1승이 곧 건국대 골프부의 세계 3대 투어 100번째 우승이기도 해 의미가 남달랐다.

우승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보미는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며 "세계 최초라고 들었는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보미는 일본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올 시즌 LPGA 투어에 참가했다. 골프가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 과정이었다.

첫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엿본 이보미는 메이저대회인 US 오픈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리우올림픽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랭킹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는 투어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보미라고 다를 수 없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한국여자골프는 상위랭커 4명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7월 11일 발표될 랭킹에 따라 상위 4명이 올림픽에 나간다. 현재 세계랭킹 15위 안에 한국 선수만 8명이 포진해 있다.

이번주 새롭게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이보미는 지난 주말 호켄 마도쿠치 레이디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15위에서 14위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보미 위로 세계랭킹 2위 박인비를 포함해 7명의 선수가 더 있다. 4.20점으로 올림픽 랭킹 4위인 전인지(5.97점)에 1.7점 이상 차이를 보인다. LPGA보다 배점이 낮은 일본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보미로서는 힘든 여정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올림픽의 꿈을 벌써부터 접기에는 이보미의 승부욕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보미는 빼어난 외모와 늘 겸손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삼촌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꾸준히 일본 투어에서 활약해 온 그녀지만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만큼 어쩌면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자 이보미는 "미국진출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일본 투어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뛰다보니 일본 팬들 사이에 한국 선수들은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일본 팬들의 많은 사랑이 감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보미는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아쉬움에 대해서도 "랭킹 포인트로 LPGA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관이 뚜렷했다. 이보미는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아쉬움에 대해서도 "랭킹 포인트로 LPGA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관이 뚜렷했다.

끝으로 은퇴 후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묻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며 잠시 난감해 하는 표정을 짓던 이보미는 "프로에 입문할 때 사랑 받는 선수로 기억됐으면 했는데 지금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미 그 목표는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새로운 목표를 고민해 훗날 꼭 그러한 선수로 팬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더클래식500 펜타즈 호텔에서 열린 건국대학교 골프부 세계 3대 투어 100승 달성 기념식에 참석한 이보미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BA 클리블랜드, 토론토 와의 1차전 승리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삼각편대'의 활약을 앞세워 토론토 랩터스에 완승을 거두고 동부 지구 결승 시리즈를 선점했다.

클리블랜드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퀵큰 론즈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7전4선승제) 토론토와의 1차전에서 115-84로 승리했다.

플레이오프 들어 8연승하며 일찌감치 지구 결승에 오른 클리블랜드와 달리 토론토는 1, 2라운드 모두 7차전까지가는 피말리는 접전 끝에 힘겹게 이곳까지 왔다.

오랜 만에 경기를 치르는 클리블랜드가 경기 감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우승 후보 답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차전 승부를 대승으로 장식했다.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케빈 러브-카이리 어빙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65점을 합작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클리블랜드는 31점차 완승으로 플레이오프 9연승을 질주하며 결승 진출을 위한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김민근기자

여자 배구 대표팀 3연승 올림픽 본선행 가까이

이정철호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세계여자예선전 3연승을 달리며 올림픽 본선행에 바짝 다가섰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18일 오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카자흐스탄과의 4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16 25-11 25-21)으로 승리했다. 앞서 강호로 분류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차례로 꺾고 연승을 신고한 한국은 카자흐스탄까지 기세를 놀렸다. 3승1패(승점 9)로 순위는 2위까지 상승했다.

당초 이 감독은 이번에 치르는 7경기 중 4승을 올릴 경우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 초반 4경기에서 3승을 신고, 목표까지 1승 만을 남겨뒀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태국(이상 아시아 국가),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페루(이상 타 대륙 국가) 등 총 8개국이 나선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상위 한 팀과 이 팀을 제외한 상위 3개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김민근기자

박태환 측 "CAS 제소 각하되지 않을 것"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까지 결정 내려 줄지는 미지수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가 수영선수 박태환(27)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CAS에 전달한 가운데 박태환측이 "제소가 각하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태환측 관계자는 18일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7일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등에 대한 CAS의 질의에 "대한체육회는 4월7일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으므로 CAS가 중재에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태환측은 충분히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두고 CAS에 제소했지만 이틀 만에 중지를 신청한 상태다.

박태환측은 이날 새벽 CAS로부터 체육회가 보낸 문서를 받은 뒤 국제변호사와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환측이 CAS에 보낸 문서에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과 향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이 경우 최근 발표된 수영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에 박태환의 이름이 빠진 것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AS가 박태환측의 주장대로 제소를 받아줘 중재를 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선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인 7월18일까지 결정을 내려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비슷한 처지의 선수들도 문제 해결까지 3~4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박태환측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6월1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기다렸다가 제소를 다시 진행하면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환측은 오는 25일 조영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힐 계획이다. 만남은 당초 18일로 예정됐지만 대한체육회의 요청으로 일주일 미뤄졌다.

이 관계자는 "선수가 25일까지 한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만일 25일 전에 해외로 나간다면 참석할 수 없겠지만 아니라면 선수가 반드시 동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첼시, 나이키와 1000억대 유니폼 스폰서 계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나이키와 무려 1000억원대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맺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8일(한국시간) "첼시와 나이키가 연간 6000만 파운드(약 1022억원)의 유니폼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첼시는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고 있다. 나이키와의 계약 금액은 기존 계약의 두 배에 달한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앞서 첼시가 아디다스와 맺은 유니폼 계약은 연간 3000만 파운드였다.

타 구단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이다. 아스날과 푸마의 유니폼 계약보다 두 배, 맨시티와 나이키의 유니폼 계약보다 세 배 높다. 하지만 EPL 내 최고금액은 아니었다. 최고 금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디다스가 체결한 7500만 파운드다.

/김민근 기자